

배포일시	2020. 9. 5.(토) 16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박찬용 사무관 이일용	전화번호	031-8025-5020

태풍 '하이선' 영향, 7~8일 수도권에 강한 비바람

- 경상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함경도 해안 상륙
 - (수도권 최대 위험 시점) 강수 7일 오후~밤, 바람 7일 오후~8일 새벽
-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 유의
 - (예상강수량) 서울·인천·경기도 50~100mm
 - (바람) 인천·경기서해안 최대순간풍속 시속 35~110km(초속 10~30m)
 서울·경기내륙 최대순간풍속 시속 35~70km(초속 10~20m)



[제10호 태풍 '하이선'의 6~8일 예상진로]

[태풍 현황과 전망]

- (현황) 제10호 태풍 ‘하이선(HAISHEN)¹⁾’은 5일(토)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.
 - 중심기압은 915hPa, 강풍반경은 약 500km, 중심최대풍속은 시속 198km(초속 55m)를 보여 초강력의 강도로 발달한 상태입니다.

- (예상진로와 강풍반경) 7일(월) 아침에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경유한 후 오후에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여 지나겠습니다. 이 시기의 강풍반경²⁾은 약 360~400km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이후 동해상에서 북진하면서 8일(화) 새벽에 함경도 해안에 상륙 하겠고, 오후에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되겠습니다.

- (예상강도) 6일(일) 오전부터 태풍의 발생지보다 수온이 다소 낮은 28℃ 안팎의 해역을 이동하면서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겠으나, 제주도와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도 945hPa 안팎의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현재 30℃ 안팎의 고수온해역을 느리게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, 5일 자정까지 초강력의 강도를 유지하겠습니다.

1) 제10호 태풍 하이선(HAISHEN)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함.

2)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풍속이 15m/s 이상 나타나는 영역

- (변동성)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입니다.
- 그림의 ① 차고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거나, 그림의 ②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조금 더 이동할 경우 예상 진로가 동편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이 경우, 태풍과 일본 열도와의 마찰이 강해지거나 건조공기가 태풍 내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[기상 전망]

- (강수 전망) 서울·인천·경기도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6일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, 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서울·인천·경기도는 태풍의 이동경로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나, 8일까지 태풍영향권에 들어 50~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특히, 7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
- 최근 잦은 비가 내린 가운데,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- 북한(강원도, 황해도)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 인근 강 유역(임진강, 한탄강 등)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겠으니, 안전사고와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□ (강풍 전망) 인천·경기서해안은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35~110km(초속 10~30m), 서울과 경기내륙은 시속 35~70km(초속 10~20m)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.

○ 특히,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 사이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야외의 입간판이나 천막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,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□ (풍랑 전망) 7일 새벽부터 8일 오후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.

○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전에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기 바라며,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높은 파고와 너울이 일면서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크겠으니, 해안도로 및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